

「국제우호도시 해구시와의 교류 활성화 등 비교견학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동해시의회

「국제우호도시 해구시와의 교류활성화 등 비교견학을 위한

공무국인출장 결과 보고

- 동해시와 국제우호도시인 해구시를 방문하여 양市간 국제우호교류 및 상호발전방향 협의
- 상해,항주의 도시,관광,역사,문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접목 및 선진 의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연 수 개 요

1. 연수기간 : 2016. 1. 12.(화) ~ 1. 15.(토)

2. 연수지역 : 중국 (해구, 상해)

- 하이코우시 (海口市) : 해구시의회, 화산구지질공원
- 상하이 (上海) : 임시정부청사, 동방명주타워, 역사박물관, 주가각, 도시계획관, 손교농업개발구

3. 연수인원 : 11명

구 분	직 위 (급)	성 명	비 고
의원(6)	의 장	김 혜 숙	단 장
	의 원	임 명 희	
	의 원	최 석 찬	
	의 원	이 정 학	
	의 원	이 동 호	
	의 원	박 주 현	
직원(5)	의회사무과장	김 정 남	
	전문위원	최 원 근	
	주무관	백 희 옥	
	주무관	전 길 순	
	도로담당	윤 동 천	건설과

2

연 수 내 용

1. 국제우호도시(해구시 의회)방문

⇒ 친선교류 증대방안 협의 및 경제,문화 등 상호 발전방향 협의 모색

2. 상해의 역사,도시계획,경제,농업 등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의정 자료수집

3

연 수 일 정

일자	행선지	연수내용	비고
제1일 1/12 (화)	인천 상해	인천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인천→상해공항 (약2시간) ◎ 역사 시설 현지시찰 - 임시정부청사 견학 상해→해구공항 도착 (약3시간30분)	06:40 공항도착
제2일 1/13 (수)	해구	◎ 공식방문 : 해구시의회 - 양 市간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 - 경제,문화 등 상호 발전방향 모색 ◎ 문화 및 도시기반 시설 현지시찰 - 무비 테마타운(영화촬영소) 견학 - 화산구지질공원 견학	
제3일 1/14 (목)	상해 항주	- 항주로 이동(3시간) ◎ 역사 및 도시경관 시설 현지시찰 - 오산성항각, 화항관어 견학 - 송성가무쇼 관람	
제4일 1/15 (금)	상해	◎ 관광자원 및 도시경관 시설 현지시찰 - 주가각, 전통재래시장, 운하 활용 등 견학 ◎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기반 시설 현지시찰 - 동방명주타워 견학 - 역사박물관 견학	
제5일 1/16 (토)	상해 인천	◎ 도시계획 시설 현지 시찰 - 도시계획 전시관 견학 ◎ 공식방문 : 손교농업개발구 - 농업 및 녹지 등 우수사례 시정접목 - 상해→인천공항 도착	20:45 공항 도착

1. 해구시 외사판공실 방문

1. 방문일시 : 2016. 1. 13(수) 10:00

2. 방문단 영접 : 韓斌 주임

3. 방문내용

- 티 타임 및 해구시정 홍보영상물 시청
- 양 시간 교류증진 방안 논의
- ⇒ 동해시 파견공무원 소개 등 실질적 교류 증진

외사판공실 한빈 주임을 비롯한 20여명의 관계 공무원들이 동해시의 회 연수단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한빈 주임은 동해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상호 파견에 대해 시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해구시 현황 소개 동영상을 시청한 후 해구시 의회와의 공식방문을 위해 버스로 이동하였다.



해구시 정부 환영 접견



해구시 현황 소개 홍보 동영상 시청

2. 해구시 의회 방문

1. 방문일시 : 2016. 1. 13(수) 11:00

2. 방문장소 : 해구시 의회

3. 참석자

- 의원 : 김혜숙의장, 임명희 · 최석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의원
- 직원 :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담당1, 주무관2

4. 해구측 주요 참석자

- 시 인민의회 의장 (陳宏芬))
- 시 인민정부 부시장 (孫世文)
- 외사판공실 주임 (韓斌)
- 중앙위원 (王愛松)
- 교육국장 (厲春)
- 체육문화국장(徐濤)
- 상무국부국장 (陳安妮)
- 통역 Ms. Jin MeiZi(金美子)

5. 진행

- 해구시 인민의회 첸홍펜 의장의 환영인사 및 관계자 소개
- 김혜숙 의장의 답례 인사 및 연수단원 소개
- 경제, 문화 등 교류 현황 및 주요 관심사항 의견교환 및 토론
- 방문기념품 교환 및 기념 촬영
- 해구시 의회 관계자와 오찬

6. 간담회 내용

해구시는 동해시와 2006년 4월 1일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 도시 간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상호방문 등을 통하여 선린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2016년은 해구시와 동해시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지 1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로서 더욱 발전적이고 활발한 교류관계를 희망하고자 한다.

그동안 무릉제 등 다양한 축제를 통하여 수많은 교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여 문화, 경제, 지역의 특성 등 양 도시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올해는 중국 공무원이 동해시에 파견되어 동해시의 문화와 풍습을 접하게 된다.

해구시의회 첸홍펜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민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동해시의원을 뵙게 되어 기쁘고, 한·중 FTA체결 등 양국의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해구시도 경제, 문명, 사회, 문화 등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동해시의회 김혜숙 의장은 「해구시와 우호협력도시가 체결된 이래 양 도시 간 경제우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호사절단 방문 등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 도시뿐만 아니라 양 의회간의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며 옷은 새 옷이 좋지만 친구는 오랜 친구가 좋다는 해구시의 공동번영 발전과 시민들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답례를 표시하였다.

해구시의회 관계자와 동해시의회 의원과의 의견 교환 및 토론의 시간을 통하여

이정학 의원은 해변, 항만 등 수산물 유통과 동해시와 해구시의 인적 자원 교류를 통해 청소년의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석찬 의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앞장 섰다.

김혜숙 의장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체육 교류, 방학을 이용하여 캠핑 교류 등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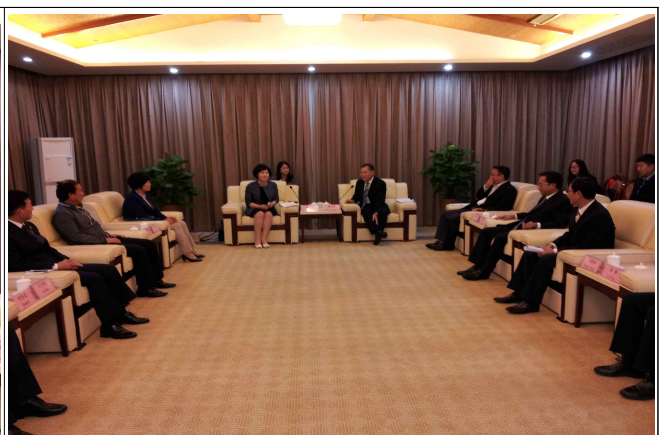
또한 무릉제 행사시 줄다리기 행사에 해구시 학생들이 참여하여 양 도시간 친선교류 증진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김정남 의사과장은 체육,문화,학생 교류를 제안하였지만 모든 교류는 시 집행부와의 사전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빈틈없는 상호교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만큼 개선된 의견들은 집행기관에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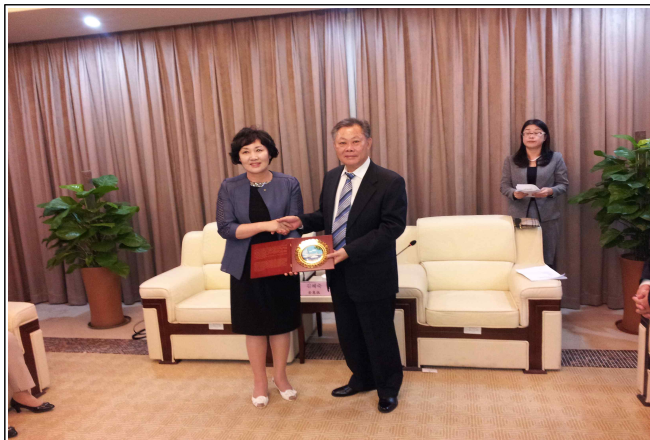
해구시 부시장은 관광,문화,체육,비즈니스 등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며 한국과 동해시가 더 많은 발전과 교류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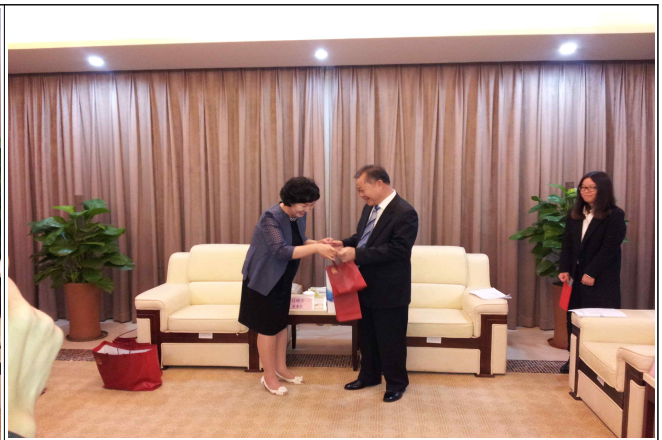
해구시 정부 방문 기념촬영



해구시 인민정부 관계자와 면담



동해시·해구시 의장 우호 교류 악수



방문기념품 전수



해구시 소개 책자, 씨디



해구시 환영 기념패

3. 해구시 관계자 주관 환영 오찬

1. 일시 : 2016. 1. 13(수) 12:00

2. 장소 : 레스토랑(청사내)

3. 내용

오찬장은 따뜻한 환대 속에 양도시간 우호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됨은 물론, 해구시와 동해시의 상호 교류협력에 일조를 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양 도시간 서로 궁금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해 개별적으로 활발한 대화를 나누는 장이 되었다.

앞으로 10년간의 국제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사업이 지속 되길 희망하며 남은 연수기간 동안 알차고 건강한 연수가 되기를 기원 하였다.



해구시 정부 공식 환영 오찬



오찬 간담회

4. 상해임시정부청사

광복 70주년을 맞아 2015년 9월 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립운동 본거지였던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찾아서 진정한 광복을 다짐하기도 한 민족사적 의미를 지닌 곳으로서

우리 연수단 일행은 저 마다의 가슴 깊이 꿈틀거리는 애국심을 다지며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서 간직해본다.

청사는 복잡한 주택가 한골목에 자리잡고 있으며 애국지사들이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새롭게 단장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 정신과 우리 역사의 뿌리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후세들의 역사 교육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의 방명록이었으며, 그중 박 대통령은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 받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2015.9.4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이라고 쓴 필적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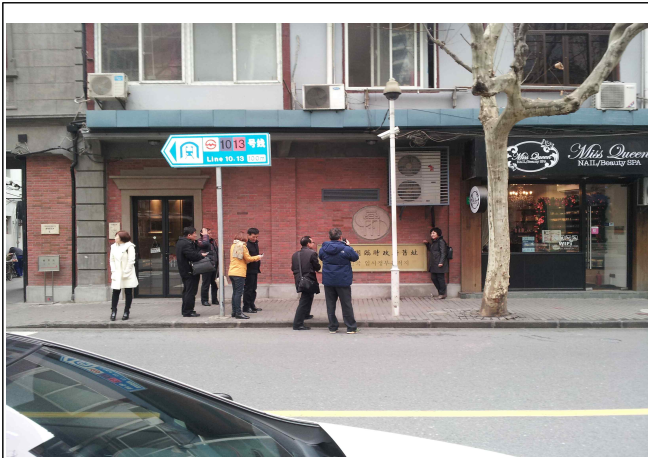
또한 항일투쟁시기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물과 임시정부 주요인사들의 사진, 임시정부의 활동과 관련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역사의 귀중한 발자취에 대하여 다시한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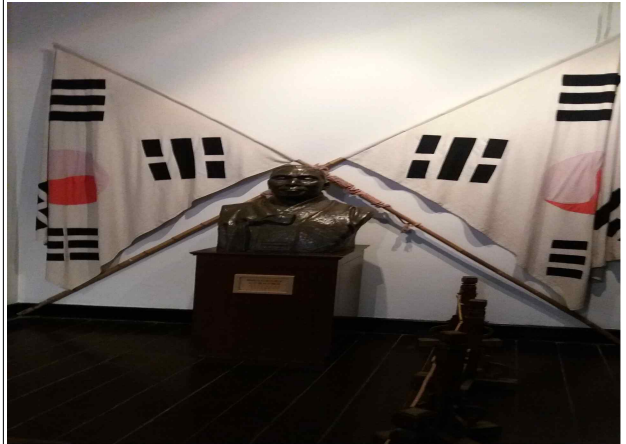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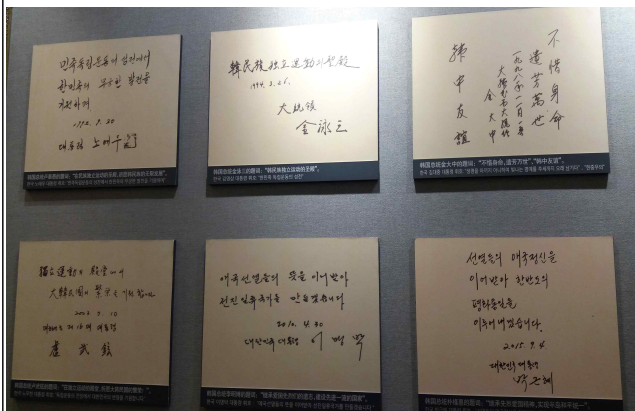
항일투쟁 활약상 등 홍보 동영상 시청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변 정경



자랑스런 태극기



역대 대통령 방명록



독립운동가 활동 상황

5. 상해도시계획 전시관 (도시계획 분야)

「상해를 이해하는 것은 이곳에서 부터 시작한다」라는 상해도시계획 전시관은 현대 건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상해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모두 관람 할 수 있는 전시관이다.

1층은 상해에 대표적인 고층건물들을 모아서 설치해 놓은 「상해의 아침」이라는 조형물이 회전하고 있으며, 동방명주 등 상해의 랜드마크를 잘 표현해 넣은 조형물이다.

1층과 2층 사이에는 상해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사진전과 예원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으며, 2층은 상해의 과거를 보는 곳이다.

3층은 상해 도시계획관의 최고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 큰 상해도시 건축모형이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계획 모형이라고 한다.

또한 2020년까지 확정된 도시계획을 반영해 상해 전 지역을 축소하여 세계 금융센터를 비롯한 동방명주 등 다양한 초고층 빌딩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그대로 축소해 옮겨 놓은 모형물들은 정말이지 감탄 그 자체였다.

특히 미래형 도시건축모형으로 10여년 이후의 상해도시를 미리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중국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임을 재삼 강조하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해시에 들어서면 고층빌딩사이로 넓게 확장된 도로에 줄지어 늘어진 가로수와 녹지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해의 도시계획이 친환경적인 요소와 디자인이 더해져서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에도 적극 반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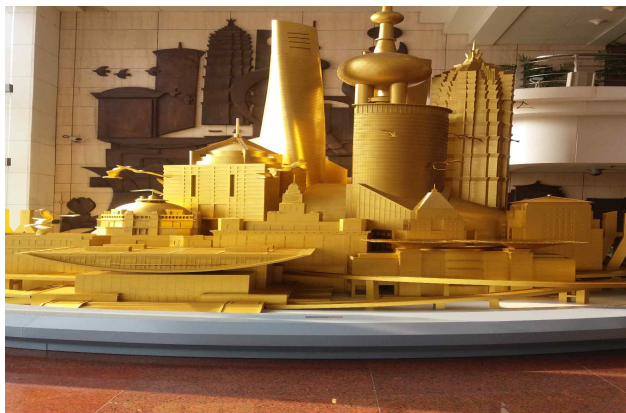
특히 이곳은 외국인들을 많이 찾는 곳으로서 중국어,영어,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서비스가 눈에 띈다.



상해의 미래 “도시계획 모형도”



상해 변천사 사진전 및 예원의 모형전시



상해의 랜드마크 “상해의 아침”조형물



상해 도시계획관 외부

6. 수향도시 주가각

중국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주가각은 상해 청포구내에 자리 잡고 있는 상해의 가장 오래된 물의 마을로서 구불구불 흐르는 물길을 따라 사람들이 집을 짓고 모여 살아가고 있는 촌락이다.

또한 강물로 빨래를 하고 그릇을 씻거나 몸을 닦아내며 이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현지인들의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 같이 강한 생활력과 함

께 진한 인간적인 연민을 느낄 수 있었다.

36개의 다리가 주가각을 구성하며 그중 방생교는 규모가 가장 크고 잘 알려진 돌다리로서 상해 최대의 석교로 그 정교함과 아름다운 미관으로 주가각의 10대 아름다운 경치 중 그 첫 번째에 꼽히고 있다.

한국의 카인과 아벨 등 각종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2001년 APEC 정상회담때 각국 정상들이 찾아서 감탄을 금치 못했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인뿐 아니라 여러나라 사람들이 모여 드는 골목에서는 카페와 기념품 가게, 자그마한 상가에서 60년대 한국의 고달픈 삶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다.

국가에서는 전통시장 보존차원에서 이 곳에서 가게를 하면 세금을 면제한다고 하며,

엿, 호떡 등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었으나, 간혹 곳곳에 애벌레 등 혐오스런 음식물이 눈에 띄어 속이 불편하였다.



주가각의 나룻배



주가각 골목 상가

	
<p>주가각에서 구두딱이 체험</p>	<p>주가각 전경</p>

7. 손교농업개발구(농업분야)

1994년에 설립된 전국 최초의 종합적인 현대농업개발구역이다.

상해 포동신구의 중심 지대에 있으며 지리적 위치가 양호하며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

손교농업개발구는 다양한 하우스 시설 설치로 유럽방식으로 현대시설과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중국농업의 미래를 확인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ISO14001 환경관리시스템 인증으로 현재 면적이 12km²으로 대규모 유리온실에서는 화훼종자·종묘와 녹색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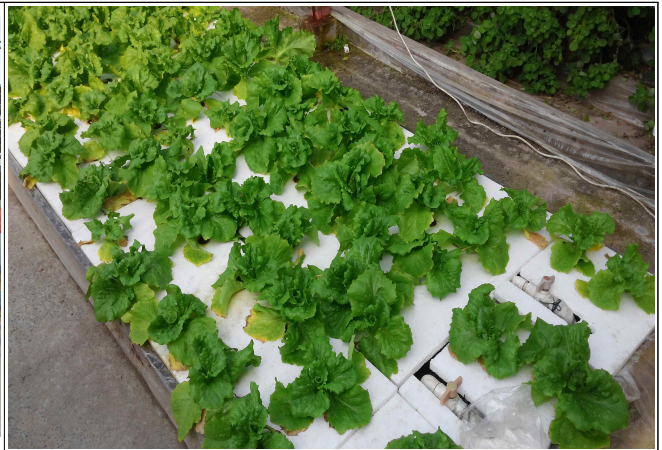
유리온실에는 토마토,파프리카,오이 등 여러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상추 등 유기농 재배를 통해 전국으로 배송한다고 한다.

하지만 기술력과 신선도, 시설 면에서 한국농업에 비해 그리 선진농업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또한 이동로에 덩굴식물을 키운 터널이 꽤나 길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이 하였으며, 우리시에도 이 터널을 벤치마킹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뉠 가져 보았다.



손교농업개발구 앞



상추 재배



덩굴 식물 터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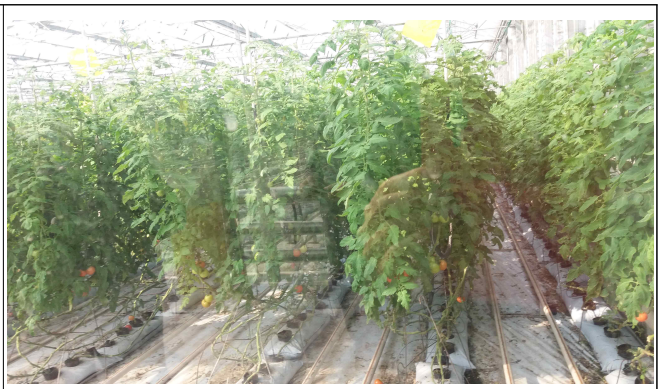
재배 방법 설명 청취



토마토 재배 현황



원에 작물

	
<p>유리 온실 내 관람</p>	<p>유리온실내 토마토 재배</p>

8. 기타 현장방문

1. 04시 30분경 상해시 새벽 거리를 둘러보았다.

거리에는 우리나라처럼 환경미화원이 400~500m 간격을 두고 6명 정도 도로청소를 하고 있었으며 이중에는 여성이 3명 정도였다.

모아놓은 쓰레기 봉지를 청소차량이 수거해 갔으며 또한 미세먼지 징집차량이 도로의 먼지를 흡입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상해 도로변에는 새벽같이 포장마차를 설치하는 장면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저녁 무렵에 포장마차가 시작되는데 이곳은 왜 새벽에 포장마차를 설치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물었더니 새벽 일터로 가기 위해 아침을 거른 상태로 출근할 때 빵,음료수 등 요기를 할 수 있도록 판매하기 위해 포장마차를 설치한다고 한다.

3. 상해시 도로 현황을 보면 차량이 운행되는 주도로 옆에는 자전거도로이고 자전거 도로옆에 인도도 설치 운영되고 있다.

새벽 5시경이 되자 자전거 도로에는 수많은 사람이 원동기 자전거(특
특이)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쿠터 같은 오토바이를 타면 안전모를 써야 하나 배터리로 운행하는
원동기 자전거는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허용되며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아도 운전 가능하다.

이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 권장되는 부분이다.

특히 도로에는 사람, 자동차, 오토바이가 신호 등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고 마구 섞여 있는 아수라장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런 무질서 속에서 유질서가 만들어져 교통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
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사람의 만만디(매사에 느리다)자세와 상대적으로 차량들이
가속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4. 아파트나 주택지는 외관은 엄두하지 않고 밖에다 온통 빨래를 걸어
놓았다.

이유는 습도가 높아 밤마다 건조시켜야 하며, 대부분 1층은 창고로
사용하며 침실이나 거실은 2층 이상에서 사용된다.

특히 속옷 등을 서슴치 않고 밖에다 내 걸었을 때 미관상 상당히 좋
지 않다.

5. 황포강 지류를 탄 소형운하가 약 1km 간격으로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작은 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수질이 상당히 혼탁한 상태라서 위생상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6. 항주만의 특색 중 하나가 납골함이 있는 작은 옥탑이다.

집들은 우리나라 연립처럼 생겼는데 맨 위에 삼각형모양으로 사당을 만들어 화장을 하여 위패와 납골을 모시는 곳이다.



빨래 걸어 놓은 모습



쓰레기 수거



아침의 모습



원동기 주차장



도로 현황



출근 하는 모습

5 연 수 후 기

이번 연수는 중국의 빠른 발전과 변화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계속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중국이라는 큰 대륙의 한 단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수천년의 역사, 문화 유산, 드넓은 국토와 수 많은 인구를 소유한 중국의 비약적 발전상을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며 주요 문화 유적 및 관광 인프라를 비교견학 함으로서 우리의 현주소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세계속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적 사고력, 경쟁력 있는 능력배양과 자신감이 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나가야 할 목표의식과 방향을 올바르게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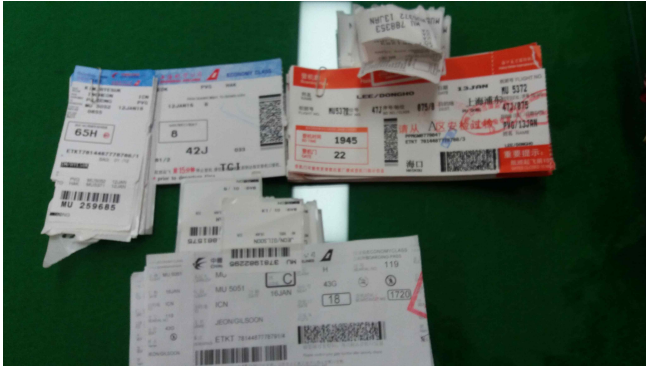
중국에 대한 연수단원들의 소감에 대해 피력하고자 한다.

중국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각종 볼거리를 만드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상해의 야간경관 유명세는 익히 잘 알고들 있으며 정부는 조명시간을 법으로 정하고 친환경, 고효율 조명시스템을 도입하여 대규모 고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전시관을 보면서 동해시도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과는 차이가 나겠지만 국가중심의 도시기반 인프라 정착을 위한 끊임없는 정책적 노력과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대화와 토론으로 도시의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추진해야 하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끝으로 금번 중국의 지역경제 시장과 문화유적, 도시계획 등을 비교 견학함으로서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좋은 우수사례들을 비교분석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도시계획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행복도시 동해시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수단원들은 더욱 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본다.



항공권



버스 승차권, 숙박 영수증



각종 홍보물